

# 국어·수학 '공통과목' 어려웠다...문과생 불리?

### '문·이과 통합' 고3 올 첫 학력평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맞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국어와 수학 모두 '공통과목'은 어렵고 '선택과목'은 비교적 쉽게 출제됐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는 전반적으로 지문 내 어휘 난이도는 높았지만 전년 수능 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이 25일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1교시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문법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독서와 문학 출제 문항수가 4개 문항 늘었다.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변화된 체제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 선택과목 중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어렵게 출제돼 선택과목 간의 �불리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시험내용과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2교시 수학은 수학 I, 수학II의 각 단원에서 고루 출제됐고,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9년부터 4점 문항이 출제돼 체감 난이도는 높았고, 기존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낮아졌으나 준 킬러 문항이 증가해 13번, 15번, 21번, 22번이 어려웠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학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는 다소 있었다는 평가다.

'확률과 통계'는 기존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됐고, '미적분'에서는 기존의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29번, 30번이 대체로 어려웠다.

'기하'는 주로 정의를 활용하는 문항들이 출제돼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낮았다.

영어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됐고 대체로 평이했으나 29번 어법상 판단, 30번 어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5일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새롭게 도입된 '선택과목제'에 긴장...체감 난이도 높아  
선택과목 간 난이도 불균형...유폴리 논란 재점화될 듯  
영어, 수능보다 쉽게 출제...문제 유형·실력 분석 기회로

추론, 34번 빈칸 추론, 36번 순서 추론은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학력평가를 치른 고3 학생들은 이번 평가가 체점을 통해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바뀐 수능 체제로 치러진 첫 학력평가인 만큼 수험생들은 수능 문제 유형을 본격적으로 접하며 본인의 실력을 분석할 기회로 삼아

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력평가는 올해 치러질 수능(11월18일) 출제경향을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수능 체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올해 바뀐 수능과 대입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진학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올해 4월 14일, 6월 3일, 7월 7일, 9월 16일, 10월 12일에 예정돼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박승희 열사 30주기 추모행사위원회 발족

### 전일빌딩 245서 내일 출범식

1991년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전남 대학생 박승희 열사 3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위원회가 발족한다.

박승희 열사 30주기 추모행사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오창규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회장이 맡고, 공동행사위원장은 열사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고윤혁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목포지부장, 1991년 당시 박승희 열사 민주국민장 장례부위원장이었던 노훈오 전남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장과 윤영덕 국회의원,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박재만 광주시 민단체협의회 대표, 최석호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 상임대표, 박대수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운영위원장 등이 맡는다.

행사위원회는 4월 24일 박승희 열사의 묘교인 목포 정명여고에 세워진 박 열사 흉상 앞 추모식을 시작으로 추모문화제 개최, 평전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온라인·오프라인 분향소 운영 등 다양한 추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희 열사 추모단체들과 학술대회, 사진전, 토크콘서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위기학생 전화하세요

## 1644-9576

### 서부부르미 대표 전화 개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 대응과 지원을 하고자 서부부르미 대표 전화(1644-9576)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부교육지원청이 발족한 서부부르미는 학교생활 지도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보호자·전문상담교사·상담사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단장에 산월초 유정중 교장, 초등 팀장에 급당초 김우호 교장, 중등 팀장에 주월중 김효중 교장을 위촉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맞춤형 컨설팅, 긴급 출동, 생활교육 지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주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생활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가 안전하고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 생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효천1지구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광주 남구, 아파트~효천역 1km...임정마을을 방향 '도시바람 숲'도

광주 남구는 효천1지구에 길이 1km와 650m 가량의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바람길 숲을 각각 조성한다.

효천1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 도로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와 효천역 사이 완충녹지 지대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미세먼지 차단 숲의 면적과 길이는 약 1만 3000㎡에 1km 정도이다. 공사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 될 것

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효천1지구 중흥에코시티 앞에서 임정마을로 향하는 효천로변 주변에서도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남구는 사업비 3억 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공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완충녹지 지대에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팝나무와 느티나무, 대왕 참나무, 배롱나무, 팽나무, 계수나무, 왕벚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꽃을 식재할 예정이다.

또 일부 구간에 조성되는 산책로를 따라 야자 보행매트와 나무를 사용해 원형 벤치와 그네 벤치, 등 의자, 자연석 판석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옛 도교육감 관사, 문화·관광거점공간으로

### 광주시, 동명동 건물 매입...내년 3월 개관

옛 전남도 교육감 관사가 여행자와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문화공연이 열리는 문화거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광주 대표문화마을사업을 통해 건물 개보수를 거쳐 내년 3월 개관하고, 이달 구조보강 등 설계공역에 들어갔다.

전남도 교육감 관사는 동명동 154-67번지, 대지 374㎡에 연면적 203㎡로 1983년 준공돼 2007년 민간에 매각되기 전까지 교육감 9명이 거주했다.

광주시는 옛 교육감 관사가 가진 현대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이야기 주제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대표문화마을 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간으로부터 매입했다.

앞으로 건물 내부는 여행자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명동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공간으로, 아외는 담장을 허물어 거리공연(버스킹)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마을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명동 일원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주읍성 동문 밖의 주거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광주의 교육,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살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과 전일빌딩 245 등 관광자원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환경 정비, 관광플랫폼인 동명공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회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